

MCN | 파이브세컨즈

세상의 모든 리뷰, 우리에게 맡겨라

외국인 리뷰 콘텐츠로 세상에 대한 화두 던져

처음 한국 힙합을 들어본 외국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미투 운동은 어떻게 보일까. 남자가 3일 동안 임신부 체험을 해본다면? 아무리 유튜브 문외한이라고 해도 이런 주제를 보고 그냥 지나치기는 힘들 거다. 재미있고 자극적인 소재가 넘쳐나는 유튜브 시장에서 오직 리뷰만으로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은 곳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한다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아이디어가 오늘날 수많은 구독자를 유튜브에 소환하고 있다. 유쾌한 사람들이 모였다. 바로 파이브세컨즈(구 코리아브로스, 대표 남석현)의 이야기다.

글 박미경 기자 pmk86@gtl.co.kr | 사진 한국엠씨엔협회·파이브세컨즈



영상에 사회적 가치를 녹여내다

사람들은 재미있어야 찾는다. 공감해야 본다. 여기에 사회적 메시지가 담여야 했다. 우리가 파이브세컨즈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파이브세컨즈는 유튜브 기반 미디어 벤처기업이자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운영하는 채널 '코리아브로스'는 국내 구독자 25만 명 돌파(전체 채널 구독자는 50만 명)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16년 한국관광공사 예비관광벤처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주)코리아브로스 법인을 설립했다. 최근 사명을 (주)파이브세컨즈로 바꾸고 6명의 직원이 의기투합하면서 유쾌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그 가운데 파이브세컨즈 남석현 대표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은 공동창설자다. 미디어로 세상을 즐겁게 만들자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뭉쳐 이 세계에 입문했다.

파이브세컨즈는 현재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 채널로 송출하고 있다. 이를 뛰어넘어 T커머스까지 진출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다. 대표적인 콘텐츠는 외국인이 체험하는 한국 즉,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시사 이슈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외국인들의 영상이다.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콘텐츠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을 녹여낸 콘텐츠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동영상 조회 수는 무려 300만회를 훌쩍 넘었다. 남석현 대표는 "이 콘텐츠는 정보전달이나 인식 개선 정도의 영향력이지만 외국인의 관점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각자 생각해보자는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고 전했다.

예비 크리에이터 서포트는 우리의 사명

최근 파이브세컨즈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교육'이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시작을 해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리에이터의 지속가능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는 것이 파이브세컨즈의 의지다. 남석현 대표는 "우리끼리 개척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충도 많았다"며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의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주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18 서울 지역 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앞으로 나란히'를 통해 한국엠씨엔협회(KMCNA)와 손을 잡고 청소년 크리에이터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실제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체험(기획, 홍보, 창작, 편집, 발표)을 위한 과정을 하루 2~3시간씩 총 5회 동안 진행하고 있다. 내 손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도 좋다. 또 하나는 대학생이나 실제로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9월부터 파이브세컨즈 전 직원이 경영, 기획, 편집 등 분야별 교육에 뛰어들었다. 이를 통해 예비 크리에이터는 파이브세컨즈 채널 출연 기회를 얻는 등 회사와 예비 크리에이터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도기 그러나 기회

파이브세컨즈는 채널과 콘텐츠 확대가 올해 목표다. 외국인 리뷰 콘텐츠 역시 다방면으로 새로운 도전을 모색 중이다. 외국인 리뷰라는 관점은 신선하지만, 표현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남석현 대표는 "지금은 도전하는 시기다. 밖에서 봤을 때는 작은 성과지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시작을 개척해 나가는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는 우리가 벌여놓은 작은 조각을 맞춰가면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명을 코리아브로스에서 파이브세컨즈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남 대표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5초(파이브세컨즈)라고 생각한다. 이 5초 안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 넣을 수 있다. 5초 안에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즐거워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크리에이터 나침반 역할 하겠다



남석현 파이브세컨즈 대표를 만나다

‘니하오! 곤니찌와!’ 2010년 남석현 대표가 유럽을 여행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외국인이 한국을 잘 몰랐었다. 무작정 한국을 알려야겠다는 생각만으로 한반도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었다. 일차원적이지만 당시로서 획기적인 1인 미디어의 시작이다.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게 삶의 비전이 됐고 8년이 지난 지금,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25만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채널 대표가 됐다. 힘들게 쌓아온 노하우일텐데 예비 크리에이터들이 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 마음이 참 따뜻하다.

Q. 처음부터 MCN에 관심이 많았나

A. 잘 몰랐다. 2016년 한국관광공사 예비관광벤처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때 한국 관광을 증진하는 콘텐츠를 만들자 해서 여행으로 연결해봤다. 한국 남자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겪는 재미있는 요소들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 외국인이 한국을 알고 한국을 찾게끔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계기로 MCN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됐다.

Q. 1인 방송의 인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자유분방함이다. 기존 방송은 방송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방송인들이 이끌기 때문에 재미는 있지만 자연스러움은 없다. 그러나 1인 방송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끼를 심분 활용해 리얼함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리얼함에 공감하고 찾다 보니 붐이 일게 된 것 같다.

Q. 다양한 채널을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잘하는 분야에 주력하는 게 좋을까

A. 내 생각에는 후자가 좋다. 지금은 1인 크리에이터가 많아졌다. 콘텐츠와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 많은 사람이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크리에이터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우리도 처음 시작한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더욱 집중할 생각이다. 파이브세컨즈는 1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회사다 보니 다양한 콘텐츠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부분에 있어 깊게 들어가는 콘텐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두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시가상 하나에 주력하는 게 대세라고 생각한다.

Q. 빠른 트렌드 파악을 위해 하는 노력은

A.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영상을 많이 보고 있다. 인기 동영상으로 꼽히는 것은 그만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화젯거리인 콘텐츠를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텐츠 하나하나의 주제는 트렌드를 파악해서 가는 게 맞고,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성향과 시대적 상황을 잘 접목해서 기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A. 크리에이터는 양성과정을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금방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만큼 포기하기가 쉽다. 왜냐면 이 일을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진 경우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들이 포기하지 않고 꼭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A.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채널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그 콘텐츠 안에 물론 사회적 가치도 녹여낼 거다. 그렇게 신뢰를 확보해 T커머스까지 연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큰 목표다. 최근 회사 사명도 코리아브로스에서 파이브세컨즈로 변경된 만큼 5초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